

## [찬양과 큐티 10]

###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김희석 성가사 / 2001 / 페이지 수: 2

꿈을 펼쳐보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미국 유학생생활에서 막 귀국한 만 29세의 나이. 귀국하며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나의 생각과는 달리 잘 되어 주지 않고, 2개의 대학에서 고작 몇 시간 강의를 할 때의 기억이다.

배운 것을 가르친다는 책임감과 아는 것을 전한다는 즐거움에 일이 없다는 불평에 앞서 소풍가기 전날의 들뜬 어린아이 마냥 강의준비에 여념이 없던 젊은 총각 교수 시절, 그 때의 수입은 두 학교를 합쳐 월 29만원. 지방으로 출장을 해야 하기에 조그만 차 하나를 구입했고 그 할부금 27만원을 내고 나면 2만원의 통장 잔액이 남았을 때였다.

서른이 되도록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것이 죄송스러워 외출을 삼가고 두문불출 하다, 불광동 근처 결혼한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된 어느 날이다. 식사를 하고 열심히 얘기하다보니 서둘러 전철역에 도착했지만 이미 막차는 떠나고 없었다.

밤 11시 30분을 조금 넘은 시간, 주머니를 뒤져보니 전철 표 말곤 단돈 200원 뿐이었다. 차를 가지고 올 걸 후회도 해보고 친구 집에 다시 돌아가 돈을 빌릴까, 남은 동전으로 집에 전화 걸어 택시비를 가지고 나오시게 할까 궁리도 해 보았지만 차는 어차피 안가지고 왔고 친구 집사람에게는 창피하고 부모님께 변변치 못한 자식이 될까봐 그냥 걷기로 맘먹고 무작정 앞을 향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비가 오기 시작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안경을 벗어 닦고, 또 닦았다. 비 오는 4월의 봄 날씨는 추웠고 어느 순간인가 안경을 닦던 나의 손은 눈으로 향했다. 그것이 빗물이 아닌 눈물임을 깨달는 순간 서러움과 외로움이 몰려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영영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꿈과 비전을 위해 노력했건만 돌아갈 차비조차 없어 어둠과 추위에 갈 곳 모르고 지쳐있는 못난 놈,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제 집도 못 가는 어리석은 놈... 너무 화가 나고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나님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남은 게 뭔가요?’ 막 소리치며 원망하는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음성. ‘희석아 내가 너를 안단다. 너의 이름을 안단다. 나의 집으로 오너라.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리지 않았느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걱정하느냐? 나의 날개 아래로 오너라.’

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던지 나의 원망은 기도로, 나의 하소연은 회개로 바뀌었다. 비를 막아주시며 해를 가려주시는 나의 주님을 안다 했지만 주님을 찾지 않았고 어둠과 추위가 두려워 떨었음을 고백했다.

얼마나 기도를 했던가. 밤새 전사와 씨름한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새로운 꿈과 가능성을 보여 주셨으며 앞을 향해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다. 세상은 널 모르지만 난 너의 이름을 안단다, 말씀하시며.

비가 그치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신이 나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나의 입에선 노래가 흘러 나왔다. 미친놈마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 출처 : 큐티와 일대일